

청소년기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randparents' Role in Their Relationship with Grandchildren in Adolescent

이 영 숙*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Yi, Yeong-Sug*
Faculty of Human Ecology, Kunsan Nat'l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grandparents' role to their grandchildren, the role type, and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role.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542 grandparents through questionnair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most frequent role activity that grandparents perform include 'advising their grandchildren to be successful,' 'encouraging them to study hard,' 'having them help housework,' and 'teaching them how to behave', whereas the least one is 'to teach things such as cooking, paduk, and chess.'
2. Supporting role, educating role and raising role are three types of grandparents' role activity to their grandchildren.
3. One of th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their role level is living arrangement of grandparents. In addition, age, economic level, and educational level are partially effective variables in grandparents' role, along with whether they work or not, how often they meet their grandchildren, and how old their grandchildren are. However, it is not among significant variables whether they are healthy, or whether they are paternal or maternal.

Key Words : grandparents' role, supporting role, educating role, raising role

I. 서론

가족제도의 변화와 인구의 노령화 현상은 조부모의 역할에서의 변화도 가져왔다. 조부모와 함께 살았던 전통적 가족에서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다양한 역할을 함으로써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었다. 즉 조부모는 손자녀를 돌보아주고, 교육하기도하며 많은 조언을 해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였다(Kornhaber, 1996). 오늘날 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핵가족제도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은 조부모가 배제된 부모자녀관계에만 집중된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조부모역할은 축소되었고 손자녀는 전통적인 가족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를 갖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또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노년층에도 침투된 결과 요즘의 노인들은 보상도 없는 조부모역할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김중숙, 2002).

그러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가족생활주기에서 자녀결혼 이후 시기가 늘어남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손자녀가 조부모를 갖게 되었고, 더욱이 자녀수의 감소와 자녀출산 기간의 축소는 조부모가 되는 시기를 앞당겨 조손관계를 지속하는 기간이 과거 어느 때보다 길어졌다. 여기에 최근의 이혼 증가는 조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게 만들어 다양한 역할을 하는 조부모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Kornhaber, 1996).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에서 조부모의 역할은 손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중간단계로서 사춘기를 거쳐 보통 12세에서 18세

* Corresponding author: Yeong-Sug Yi
Tel: 063)469-4623, Fax: 063)469-4621
E-mail: ysyi@kunsan.ac.kr

사이의 연령층으로 직접 양육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기에 비해 조부모의 직접적인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기간은 아니다. 더구나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 상 손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시기로 조부모와 접촉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발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함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은 입시에 대한 요구와 가족의 기대나 가치관과 모순을 이루는 가치나 목표에 쉽게 접할 수 있어 부모자녀관계에서 많은 갈등이 있는 시기(김태련·장희숙, 1996)이기 때문에 부모 이외의 완충작용을 해줄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조부모는 청소년기 손자녀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기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을 조사하여 조부모의 역할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현대 가족에서 조부모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조부모와의 관계를 경험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조부모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갖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도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연구는 조부모 또는 조모(Neugarten and Weinstein, 1964; Robertson, 1977), 손자녀의 지각을 통해(Kornhaber and Woodward, 1981; 서동인, 1989) 조사 분류한 것으로 조부모의 역할이 몇 가지 형태로 분류되어 손자녀에게 미치는 조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었다. 그런데 이런 연구들에서 조모는 손자녀와 더욱 가까운 애정적 결속을 유지하며 종적인 세대관계에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 내 접촉과 대화를 이끌어온 친족유지자로 여기고 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인 반면 조부는 제외되고 있다(박의순, 1990). 또한 손자녀의 연령 구분없이 또는 양육적 측면만을 강조한 유아기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만을 조사한 연구들이 많아 청소년기 손자녀에 대한 조부와 조모의 역할을 비교해보는 자료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손자와 손녀에 대한 조부와 조모의 역할을 밝히고 조부모의 역할 유형을 구분하며, 이러한 역할 유형에 미치는 관련 변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조부모가 청소년기 손자녀에게 수행하는 역할 행동은 어떠한가?
2. 청소년기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 유형은 어떠한가?
3. 청소년기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 유형은 관련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과 역할유형

조부모는 손자녀와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역할을 수행한다. 아이 돌보기, 농담하며 놀기, 돈 주기, 함께 TV 보기, 함께 이야기하기, 조언해주기, 손자녀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 예배참석하기, 훈련하기, 산책이나 여행가기, 기술이나 게임 가르치기, 부모와 손자녀 간의 문제 해결하기, 휴일에 함께 지내기, 조부모의 집에서 함께 자기, 외식하기, 쇼핑하기 등이 가장 흔히 지적되는 활동(Robertson, 1977; Cherlin & Furstenberg, 1986; Kennedy, 1992b)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부모의 역할은 손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손자녀가 유아일 때에는 양육적인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박화윤·이영숙, 1999), 대학생이 조부모와 같이 하는 활동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이영숙·박경란, 2000), 휴일 등에 함께 지내기, 함께 텔레비전보기, 식사하거나 함께 하기, 잘못된 것 지적하기 및 예의 가르치기, 교육비나 선물주기 등으로 나타나 손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의 중간 시기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아동에서 성인으로 되어가는 과도기적 존재(권이중, 1996)이기 때문에 조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도 아동이나 성인 손자녀와는 다르다. 사실 청소년기 손자녀의 조부모와의 관계는 아동기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벗어나 좀 더 심리적,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Cherlin & Furstenberg, 1986) 청소년기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이 다른 단계의 손자녀와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2. 청소년기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 역할의 관련변인

전통사회의 조부모 역할과 달리 개인주의가 노년층에도 침투함에 따라 조부모 역할은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되는 것(김중숙, 2002)을 보면 조부모 역할에서 조부모 관련 변인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다.

조부모의 성에 따라 손자녀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Hagestad, 1985)는 조부모의 성이 손자녀에 대한 역할을 달리 하게 함을 암시해준다. 즉 조부는 수단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나 조모는 수단적인 면뿐 아니라 손자녀의 사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조모

는 조부에 비해 손자녀의 돌봄이나 조언을 주는데 있어서 책임감을 덜 느낀다는 보고(Thomas, 1986)나, 조부는 외부나 지역사회활동을 조모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에너지 측면에서 손자녀와 함께 할 여력이 적고, 함께 TV보거나 쇼핑하기 등은 조모와 더 많이 하는 활동으로 나타나 조부모의 활동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 또는 남성의 일이라고 구분된 것과 같은 경향인 것(Kennedy, 1992b)을 통해서도 조부모의 성이 손자녀와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변인임을 확인해주었다.

조부모의 성과 함께 그들의 연령도 손자녀에 대한 역할과 관련된 변인으로 보여진다. 즉 조부모의 연령이 증가하면 손자녀와의 관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더욱이 연령증가와 조부모의 건강과의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조부모의 연령과 건강은 조부모 역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건강이 좋은 조부모를 손자녀가 선호한다는 결과(서동인, 1989; 김혜경, 1997)는 건강에 따라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Neugarten & Weinstein(1964)은 조부모의 연령이 65세 이상일 때는 조부모의 공식적 유형이 일반적이며, 그 이하의 연령에서는 재미추구형이나 원거리유형이 더 일반적이라고 하여 연령에 의한 차이를 밝혔고, Thomas(1986)도 젊은 조부모가 나이가 든 조부모에 비해 손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더 느낀다고 하여 조부모의 연령이 손자녀에게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임을 밝혔다.

한편 Robertson(1977)은 조부모의 나이에 의해 그들의 역할유형에 차이가 있지만 학력에 의한 차이보다 크지 않다고 하여 학력이 나이보다 조부모의 역할유형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변인임을 밝혔다. 이 점은 유아기 손자녀의 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한경희, 1988; 박화운·이영숙, 1999)나 손자녀 나이를 구분하지 않은 연구(배경미, 1988; 서병선, 1995)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조모의 학력이 무학인 경우보다 중졸 이상의 조모가 손자녀에 대한 역할에 보다 적극적이고 교육적인 참여를 많이 한다. 그러나 서동인(1989)은 조모의 역할수행을 손자녀의 지각으로 조사한 결과 조모의 연령이나 학력은 조모 역할 수행에 차이를 보이는 변인이 아니라고 하여 이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조모역할수행측면에서 외조모는 친조모보다 용돈이나 선물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서동인, 1989)는 친조부모인지 외조부모인지에 따라 다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어머니는 친족유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이정덕, 1990)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에 대한 모의 태도의 차이가 있다면 친손과 외손에 대한 역할상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조부모 관련 변인과 함께 조부모역할에 영향을 부는 변인은 손자녀 변인이다. 조부모 역할에 관련 있는 손자녀 변인으로는 손자녀의 성과 나이를 생각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 가족 내에서 자녀의 성이나 나이에 따라 그들의 처우에 많은 차이를 둔 것을 고려하면 손자녀의 성과 나이도 이들 변인에 따라 조부모 역할이 달라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손자녀의 나이는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Kivett, 1991). Kahana & Kahana(1970)도 손자녀의 나이에 따라 원하는 조부모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 조부모의 역할도 손자녀 나이에 따라 달라지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 별로 많지 않아 우리가 알고 있는 조부모-손자녀 관계에 대한 지식은 청소년기 손자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연령 구분 없이 행해진 연구결과인 것이 많다(Hodgson, 1998). Kennedy(1992b)는 대학생인 손녀가 손자보다 대화, 쇼핑, 가사도우기 활동 등을 많이 하고 손자는 낚시 등 오락활동이나 밭일 도우기 등을 많이 하여 손자녀의 성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그 외 손자녀와 조부모의 동거여부 등 접촉 변인이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이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조부가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손자녀는 자주 접촉하는 손자녀라고 지적한다는 결과(Kivett, 1985)나 전화에 의한 접촉이 잦을수록 손자녀가 조모를 더 친밀하게 지각한다는 결과(김연수, 1993)도 조부모와 손자녀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조손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혀주고 있다. 또한 손자녀와 동거하는 조모는 동거하지 않는 조모보다 오랫동안 유아나 아동기의 손자녀를 돌보아준다는 옛날이야기나 동화를 들려주는 것과 같은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한경희, 1988; 서동인, 1989; 박화운·이영숙, 1999), 청소년기 손자녀도 조모와 동거하는 청소년이 친밀도를 더 높게 지각(백문화, 1992; 이영숙·박경란, 2000)을 한다는 결과가 조부모와 손자녀의 동거여부가 조손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중고생들의 조부모 542명이다. 자료수집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농촌과 도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학생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2000년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교사를 통해 질문지를 배부, 수거 하였다. 총 630부 질문지를 배포하여 성실하게 응답한 542부(86.0%)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부모의 연령분포는 만 53세부터 89세로 평균연령은 67.7세이다. 생활정도는 어려운편 11.2%, 보통 74.9%, 넉넉한편 13.9%의 분포를 보이며, 시거주자 61.2%, 군 거주자 38.8%이다. 조부모의 건강상태는 나쁜 편 19.8%, 보통 57.9%, 좋은 편 22.3%이며, 손자녀와 동거하는 조부모는 63.2%,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는 36.8%이다. 직업이 없는 조부모가 83.9%, 학력은 무학이 32.1%, 초등학교졸 이하가 43.9%, 중고졸 이상이 24.0%로 대부분이 초등학교졸 이하였다.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는 친조부 20.1%, 외조부 8.1%, 친조모 51.9%, 외조모 19.9%이다.

2. 측정도구 및 분석

노인대학에 등록한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활동에 대한 서술 결과와 선행연구(Robertson, 1977 ; Cherlin & Furstenberg, 1986 Kennedy, 1992a ; 한경희, 1998 ; 서동인 1989)를 토대로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 목록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문항은 '손자녀를 지도하거나 훈계한다'에서부터 '손자녀에게 요리 또는 바둑, 장기 등 알고있는 기술을 가르친다'까지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매우 자주 한다' 5점에서부터

'전혀 하지않는다' 1점까지의 리커트척도로, 전공자 3인 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문항의 응답을 요인분석하여 하위척도로서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90$)와 하위척도인 지지역할($\alpha=.88$), 교육역할($\alpha=.82$), 양육역할($\alpha=.66$)의 신뢰도는 척도로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다.

자료 분석은 SPSS/PC-WIN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요인분석(사용된 요인모형은 주성분분석방법, 요인회전은 Varimax 방법에 의거 직교회전시킴), 일원분산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t검증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행동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행동을 알아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역할행동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기',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기', '집안일 돌보기', '예절 가르치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4개 행동은 평균 3.75점 이상을 받아 빈번히 행하는 행동들로 볼 수 있다. 가장 빈번히 수행하지 않는 행동을 보면 '요리 또는 바둑, 장기 등 알고 있는 기술을 가르치기'로 나타났다. 이 행동은 평균 2.5점으로 빈번히 안하는 행동들로 볼 수 있다. 나머지 11개

<표 1> 청소년기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행동

행동	M	SD	순위
손자녀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한다	4.09	.88	1
손자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한다	3.91	.97	2
집안일을 돌본다	3.77	1.09	3
손자녀에게 예절을 가르친다	3.75	.99	4
필요할 때 손자녀에게 조언을 한다	3.66	.87	5
손자녀를 이해해준다	3.60	.86	6
손자녀에게 음식을 해준다	3.49	1.27	7
손자녀를 지도하거나 훈계한다	3.32	.92	8
손자녀가 속상할 때 달래준다	3.30	1.06	9
집안의 조상과 어른에 대해 얘기해준다	3.23	1.05	10
손자녀와 재미있는 얘기를 나눈다	3.18	1.05	11
손자녀의 친구가 되어준다	3.16	1.06	12
손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3.12	1.06	13
손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	3.12	1.03	14
손자녀와 부모사이의 의사소통을 도와준다.	3.09	.94	15
손자녀에게 요리 또는 바둑, 장기 등 알고있는 기술을 가르친다	2.50	1.10	16

행동은 보통 수행하는 행동들이다. 손자녀에게 조부모가 빈번히 하는 행동과 빈번히 하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요즘 청소년기 학생이 조부모와의 관계를 일부 알아볼 수 있다. 즉 오늘날 청소년은 학업을 포함한 학교생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조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기가 어려운 측면을 볼 수 있다. 즉 조부모가 청소년 손자녀를 위해서 빈번히 하는 역할행동은 청소년의 학업과 관련된 것이며, 빈번히 하지 않는 행동은 많은 시간을 가져야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2. 조부모의 역할 유형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하는 역할행동 16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첫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27.53%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요인을 구성하는 8문항이 일상생활에서 손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지지역할”로 명명하였다. 대표적 문항으로는 ‘손자녀의 친구가 되어준다’ ‘손자녀와 재미있는 얘기를 나눈다’ ‘손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와 같은 것이 있다.

두 번째 요인은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의 설

명력을 가진다. 이들 문항은 조부모의 행동 중 손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교육적인 행동이므로 “교육역할”로 명명하였다. 즉 ‘손자녀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한다’ ‘손자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한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은 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10.07% 설명력을 가진다. 이들 문항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 손자녀의 신체적 또는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양육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양육역할”로 명명하였다. 즉 ‘집안일을 돌본다’, ‘손자녀에게 음식을 해준다’ 등이다.

이러한 역할유형은 유아의 조모를 대상으로 하여 조모의 역할을 분류한 결과 양육자역할, 교육자역할, 지원자역할로 나타난 결과(박화운·이영숙, 1999)와 매우 유사하나 중요도의 순위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즉 유아기 손자녀의 조모는 양육역할이 전체 역할 중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역할인데 반해 청소년기 손자녀의 조부모의 역할에서는 지지역할이 그러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청소년기 손자녀는 유아에 비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연령이어서 그들은 양육적 역할보다는 정서적인 지지역할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표 2> 청소년기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 요인분석

행동	요인 1 (지지역할)	요인 2 (교육역할)	요인 3 (양육역할)
손자녀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한다	.12	.83	.11
손자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한다	.10	.80	.06
집안일을 돌본다	.12	.14	.84
손자녀에게 예절을 가르친다	.35	.71	.06
필요할 때 손자녀에게 조언을 한다	.31	.65	.07
손자녀를 이해해준다	.68	.22	.03
손자녀에게 음식을 해준다	.30	.02	.79
손자녀를 지도하거나 훈계한다	.24	.54	.08
손자녀가 속상할 때 달래준다	.67	.27	.19
집안의 조상과 어른에 대해 얘기해준다	.42	.51	.00
손자녀와 재미있는 얘기를 나눈다	.73	.23	.24
손자녀의 친구가 되어준다	.78	.19	.10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72	.21	.28
손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	.58	.18	.17
손자녀와 부모사이의 의사소통을 도와준다.	.70	.21	-.06
손자녀에게 요리 또는 바둑, 장기 등 알고있는 기술을 가르친다	.59	.18	.14
Eigenvalue	4.40	3.23	1.61
누가변량(%)	27.53	47.74	57.81

3. 관련변인에 따른 조부모의 역할유형

1) 조부모 변인에 따른 조부모의 역할

조부모 변인에 따른 손자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은 <표 3>과 같다.

조부모의 성, 나이, 학력, 직업, 생활수준, 건강에 따른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을 분석 결과 성과 생활수준에 따라서 전체 역할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조모가 조부보다 전반적으로 조부모역할을 더 많이 하며 특히 이러한 차이는 지지역할과 양육역할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넉넉한 조부모가 역할을 많이 수행하며 그 다음으로 어려운 조부모, 그리고 가장 역할을 적게 수행하는 조부모는 생활수준이 보통인 조부모로 나타났다. 조부모가 가난한 계층에서 부모 대신의 역할을 하며 양육책임을 가진다고 하는 선행연구(Sands & Goldberg-Glen, 2000)와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지지역할과 교육역할에서만 유의하고 양육역할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추후 생활수준간의 차이에 대해 더 조사되어야 할 부분이다.

조부모 변인에 따른 역할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조부모의 건강에 따른 차이는 없고, 나이, 학력, 직업유무 및 생

활수준에 따른 차이는 일부 나타났다. 청소년기 손자녀에게 연령이 많거나 직업이 있는 조부모는 상대적으로 젊은 조부모나 직업이 없는 조부모보다 양육역할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육역할이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의 조부모가 나이가 많은 조부모보다 훈련이나 양육, 조언 등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Thomas, 1986; 서병선, 1995)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학력이 높은 조부모는 학력이 낮은 조부모보다 교육역할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은 조부모가 손자녀의 교육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유아의 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교육을 받은 조모는 그렇지 않은 조모에 비하여 현저하게 교육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힌 결과(한경희, 1988; 이영숙·박화윤, 1999)와 동일하다.

2) 손자녀 변인에 따른 역할의 차이

청소년기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을 손자녀의 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조모의 경우는 차이가 없었으나 조부의 경우에는 손자에게 손녀보다 역할을 더 많이 하는

<표 3> 조부모 변인에 따른 역할유형의 차이

변인	구분(N)	지지역할	D	교육역할	D	양육역할	D	전체	D
성	조부(144)	2.98(.67)		3.68(.68)		2.85(.98)		3.23(.56)	
	조모(376)	3.24(.75)		3.66(.69)		3.93(.90)		3.43(.64)	
	t값 및 유의도	-2.53*		.33		-4.32*		-2.44*	
나이	<65(91)	3.18(.69)		3.73(.63)		3.88(.94)	a	3.45(.59)	
	66~75(289)	3.16(.78)		3.68(.70)		3.62(1.05)	b	3.39(.67)	
	76~(145)	3.06(.73)		3.59(.71)		3.49(.98)	b	3.29(.63)	
	F값 및 유의도	.37		.25		4.19*		.16	
학력	무학(165)	3.11(.83)		3.60(.75)	a	3.79(.99)	a	3.34(.72)	
	초등졸이하(224)	3.11(.72)		3.65(.70)		3.59(1.00)		3.35(.64)	
	중고졸이상(125)	3.21(.69)		3.78(.59)	b	3.51(1.00)	b	3.45(.56)	
	F값 및 유의도	.82		2.54*		3.00*		1.18	
직업	있음(82)	3.11(.77)		3.68(.68)		3.45(1.01)		3.34(.66)	
	없음(418)	3.14(.75)		3.66(.69)		3.72(1.00)		3.38(.64)	
	t값 및 유의도	-.32		.33		-2.32*		-.44	
생활정도	어려움(57)	3.19(.74)		3.79(.80)		3.89(1.02)	a	3.47(.64)	
	보통(387)	3.08(.76)	a	3.61(.70)	a	3.59(1.01)	b	3.32(.66)	a
	넉넉함(74)	3.38(.69)	b	3.84(.51)	b	3.55(1.50)		3.57(.52)	b
	F값 및 유의도	4.93**		4.44*		2.39		5.58**	
건강	나쁨(102)	3.15(.78)		3.69(.77)		3.76(1.13)		3.41(.70)	
	보통(304)	3.12(.75)		3.62(.68)		3.57(.98)		3.34(.63)	
	좋음(114)	3.21(.73)		3.75(.64)		3.68(1.02)		3.45(.63)	
	F값 및 유의도	.56		1.66		1.45		1.43	

*p<.05 **p<.01

D : Duncan's grouping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특히 교육역할 영역에서는 조부의 경우 손자녀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조부는 손자에게 손녀보다 교육적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이는 조부의 손자에 대한 교육적인 기대가 손녀에 대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주며 따라서 조부가 조모보다 손자녀의 성에 따른 구분을 더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조모는 세 영역 중 양육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데 손자녀의 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손자와 손녀를 구분하지 않고 비슷한 정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서동인(1989), Kennedy(1992a)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한편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가 친손인지 또는 외손인지에 따른 조부모 역할상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유아의 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영숙·박화운, 1999)와 동일하다. 이러한 점으로 전통적인 가정과 많이 달라진 일면을 찾아 볼 수 있다. 전통적 부계가정에서 친손인지 외손

인지 여부는 가족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 결과로 사료된다.

조부모의 역할에 영향을 주는 손자녀의 변인으로 가장 중요한 변인은 손자녀의 나이로 나타났다. 조부모는 중학생 손자녀에게 고등학생 손자녀보다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역할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 손자녀의 경우 중학생 손자녀보다 조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도 적을 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부모를 포함한 주위 모든 사람의 교육적인 역할의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3) 손자녀와의 접촉에 따른 조부모의 역할

손자녀와의 접촉은 조부모의 역할에 중요한 변인임을 <표 5>에서 볼 수 있다.

<표 4> 손자녀 변인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

변인	구분(N)	지지역할 M(SD)	교육역할 M(SD)	양육역할 M(SD)	전체 M(SD)	
성	조부	손자(53)	3.07(.68)	3.82(.59)	2.98(1.01)	3.34(.57)
		손녀(97)	2.89(.71)	3.58(.73)	2.78(.92)	3.13(.62)
		t값 및 유의도	1.50	2.16*	1.24	2.00*
	조모	손자(59)	3.16(.67)	3.71(.64)	3.88(.87)	3.42(.56)
		손녀(92)	3.24(.81)	3.63(.72)	3.97(.87)	3.45(.69)
		t값 및 유의도	-.98	1.11	-.94	-.36
조손 관계	조부	친손(104)	3.00(.72)	3.72(.71)	2.86(.95)	3.25(.62)
		외손(44)	2.83(.66)	3.54(.62)	2.84(.99)	3.10(.57)
		t값 및 유의도	1.42	1.50	.11	1.42
	조모	친손(278)	3.17(.77)	3.67(.70)	3.90(.90)	3.41(.66)
		외손(108)	3.31(.74)	3.64(.66)	4.03(.79)	3.50(.61)
		t값 및 유의도	-1.63	.27	-1.31	-1.13
나이	12-15세(247)	3.20(.77)	3.73(.72)	3.66(1.08)	3.44(.68)	
	16-19세(275)	3.08(.73)	3.60(.66)	3.60(.96)	3.32(.61)	
	t값 및 유의도	1.85	2.18*	.66	2.08*	

*p<.05

<표 5> 손자녀와의 접촉에 따른 조부모 역할

변인	구분(N)	지지역할	D	교육역할	D	양육역할	D	전체	D
동거여부	동거(325)	3.21(.76)		3.72(.66)		3.70(1.03)		3.44(.64)	
	비동거(190)	3.01(.72)		3.54(.74)		3.49(.99)		3.25(.65)	
	t값 및 유의도	2.97**		2.81**		2.32*		3.18**	
비동거시 접촉빈도	년 1회 이하(23)	2.75(.95)	a	3.02(.88)	a	3.19(.99)	a	2.86(.86)	a
	년 1-2회정도(27)	2.54(.72)	a	3.16(.69)	a	3.42(.99)	a	2.85(.63)	a
	월 1-2회정도(120)	3.15(.72)	b	3.67(.65)	b	3.54(1.00)	a b	3.38(.61)	b
	주 1회이상(17)	3.50(.57)	b	3.99(.75)	b	4.00(1.00)	b	3.72(.53)	c
	F값 및 유의도	8.86***		11.31***		2.35		11.53***	

*p<.05 **p<.01 ***p<.001

D : Duncan's grouping

먼저 손자녀와 조부모의 동거여부는 전반적인 조부모의 역할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손자녀와 동거하는 조부모는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지지역할, 교육역할, 양육역할 모두 유의하나 양육역할에서 특히 그 차이가 컸다. 손자녀와 동거하는 조부모는 손자를 보살필 기회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손자녀가 조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조부모와 손자녀의 접촉정도가 손자녀에 대한 역할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매주 1회 이상 만나거나 한 달에 1-2회 정도 손자녀와 만나는 조부모는 일년에 1-2회 또는 한번 이하로 드물게 접촉하는 조부모보다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접촉을 빈번히 할수록 많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유아의 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거하는 조모가 동거하지 않는 조모보다 조모 역할을 많이 하며 특히 양육적 역할과 지원적 역할을 많이 한 결과(이영숙·박화윤, 1999)와 맥락을 같이하며, 동거 조모가 비동거조모보다 오랫동안 손자녀를 돌보며 조모와 동거하지 않는 손자녀의 경우 거주지의 근접성이나 접촉정도에 따라라도 조모의 역할활동에 차이를 보인다는 한정희(1988)와 서동인(1989)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조모와 동거하지 않는 손자녀에게 동거하는 기회를 줄 수는 없지만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 손자녀와 조부모관계 증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기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역할을 영역별로 분류함과 동시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중고등학생의 조부모 542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기',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기', '집안일 돌보기', '예절 가르치기'와 같은 4개 역할활동을 많이 하며 '요리 또는 바둑, 장기 등 알고 있는 기술을 가르치기'와 같은 역할활동은 가장 수행하는 정도가 낮은 활동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유형은 지지역할, 교육역할, 양육역할의 3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지지역할이 가장 설명력이 컸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역할, 양육역할 순 이었다.

셋째, 손자녀와 조부모와의 친손·외손관계와 조부모의 건강은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조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유무, 생활정도 및 손자녀의 나이와 손자녀와의 접촉빈도는 일부 영역에서만 역할 정도에 영향을 미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손자녀와의 동거 여부는 손자녀와 조부모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한편 조모의 역할은 손자녀의 성과 관련이 없이 수행되었으나 조부는 손자에게 역할을 더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현대 가족에서도 조부모는 청소년 손자녀에게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이 감소하고 있는 현대가족에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즉 3세대 전통가족이 가진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의 긍정적인 면이 부족한 핵가족이 보편화된 현 시점에서 손자녀에게 일정역할을 하는 조부모의 자원을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이나 교육도 도와주는 역할 등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노년기를 보내는 노인이나 청소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청소년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 정도가 접촉기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는 조손관계를 경험시키는 프로그램 작성에 대단히 의미 있는 시사를 해준다. 즉 조부모 즉 노인들이 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년기 손자녀와 조부모가 함께 할 기회를 위한 세대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내용은 본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지지활동을 가장 많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부는 손자에게 교육역할을 더 많이 한다는 점도 주목하여 이러한 프로그램 내용에 반영되도록 함도 필요하다.

덧붙여 조부모와의 경험은 청소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인 세대에게도 얻는 점이 많음을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등에 삽입하여 손자녀와의 경험을 할 기회를 스스로 찾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인이 되도록 교육함도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 본 연구과 관련하여 이혼한 가정 및 취업모 가정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조부모의 활동과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한다면 조부모 역할을 보다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조부모역할, 지역역할, 교육역할, 양육역할

참 고 문 헌

- 권이중(1996). 청소년학개론. 교육과학사.
- 김연수(1993). 부모-조부모관계와 손자녀-조부모 친밀도가 청소년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사실인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숙(2002). 현대 사회의 가족 변화와 조부모역할. 수원대학교 논문집 20. 1-11.
- 김태련·장희숙(1996). 발달심리학. 박영사.
- 김혜경(1997).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세대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65-79.
- 박의순(1990). 대학생이 지각한 조모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화윤·이영숙(1999). 유아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 역할에 관한 연구. 유아 교육연구, 19(2), 21-41.
- 배경미(1988). 조부모역할에 관한 기초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문화(1992).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동인(1989).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 손자녀와의 접촉과 조모의 역할 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45-60.
- 서병선(1995). 조모의 손자녀 대리 양육 수행과 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박경란(2000). 청년기 손자녀와 조부모의 공유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6.
- 이정덕(1990). 조부모에 대한 손자녀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논문집 29집. 619-660.
- 한경희(1988). 유아기 자녀양육에서 할머니의 역할에 관한 연구-대전시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herlin, A. J. and Furstenberg, F. F.(1986). The new American grandparent: A place in the family, a life apart. In Denham, T. E. & Smith, C. W.(1989).The influence of grandparents on grandchildren: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sources. *Family Relations*, 38(3), 345-350.
- Hagestad, G. O.(1985). Continuity and connectedness. In Bengston & Robertson(ed.). *Grandparenthood*, Sage Pub.
- Hodgson, L. G.(1998). Grandparents and older grandchildren. In Szinovacz, M.E.(1998 ed.) *Handbook on grandparenthood*. Greenwood Press.
- Kahana, B. and Kahana, F.(1970). *Grandparenthoo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veloping child*. In Sonnek, I. M.(1980). The grandparenting role in our changing society and its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ED 197845.
- Kennedy, G. E.(1992a). Quality in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s. *Int'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5(2), 83-98.
- Kennedy, G. E.(1992b). Shared activities of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Psychological Reports*, 70, 211-227.
- Kivett, V.R.(1985). Grandfathers and grandchildren: Patterns of association, helping, and psychological closeness, 34, 565-571.
- _____(1991). The grandparent-grandchild connection. *Marriage and Family Review*, 16, 267-290.
- Kornhaber, A. and Woodward, K. L.(1981). Grandparent /grandchildren: The vital connection.In Barranti, C. R.(1985). The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family resource in an era of voluntary bonds. *Family Relations*, 34(3), 343-352.
- Kornhaber, A.(1996). *Contemporary grandparenting*. Sage Pub.
- Neugarten. B. L. & Weinstein, K .K. (1964). The changing American grandpar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6, 199-204.
- Robertson, J. F.(1977). Grandmotherhood: A study of role conce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1), 165-174.
- Sands, R.G. & Goldberg-Glen, R.S. (2000). Factors associated with stress among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Family Relations*, 49(1), 97-105.
- Thomas, J.L.(1986).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grandparenting. *Journal of Gerontology*, 41(3). 417-423.

(2004. 08. 26 접수; 2004. 10. 10 채택)